



경영자의 고독한 전장: 왕국 경영자 OS의 필요성



세상의 경영 논리 (The Worldly OS)

- ↳ 미래 예측과 철저한 대비
- ↳ 내 소견과 철학에 기반한 의사결정
- ↳ 기업 이윤과 효율성 최우선



결과: 경영자의 고독함, 영적 소진,
무거운 책임감

핵심 질문: 과연 크리스천 CEO는 이 폭풍 속에서
계속 혼자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가?

독단과 불안의 제거: 내어드림의 시작

자아와 통제권 (Ego & Control)

- 나의 주장
- 나의 판단
- 시장의 논리

절대 주권

(Absolute Sovereignty)

- 그리스도의 명령
- 주님의 섭리

Insight: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소견대로 직장 and 기업을 만들라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통제권이라는 쇳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리더십의 역설: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안

Paradigm Shift: 나는 이 배의 진정한 CEO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and 사업이라는
배의 진정한 조타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주도권을 넘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Kingdom Business가 시작됩니다.





하이레테스 (Hyperetes): 발이 묶인 자

어원적 의미: 2천 년 전 로마 갤리선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The under-rower).

왕국 경영자의 첫 번째 정체성

1. 발이 묶여 자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2. 오직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후진하고, 회전하는 철저한 순종.

핵심: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의 CEO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일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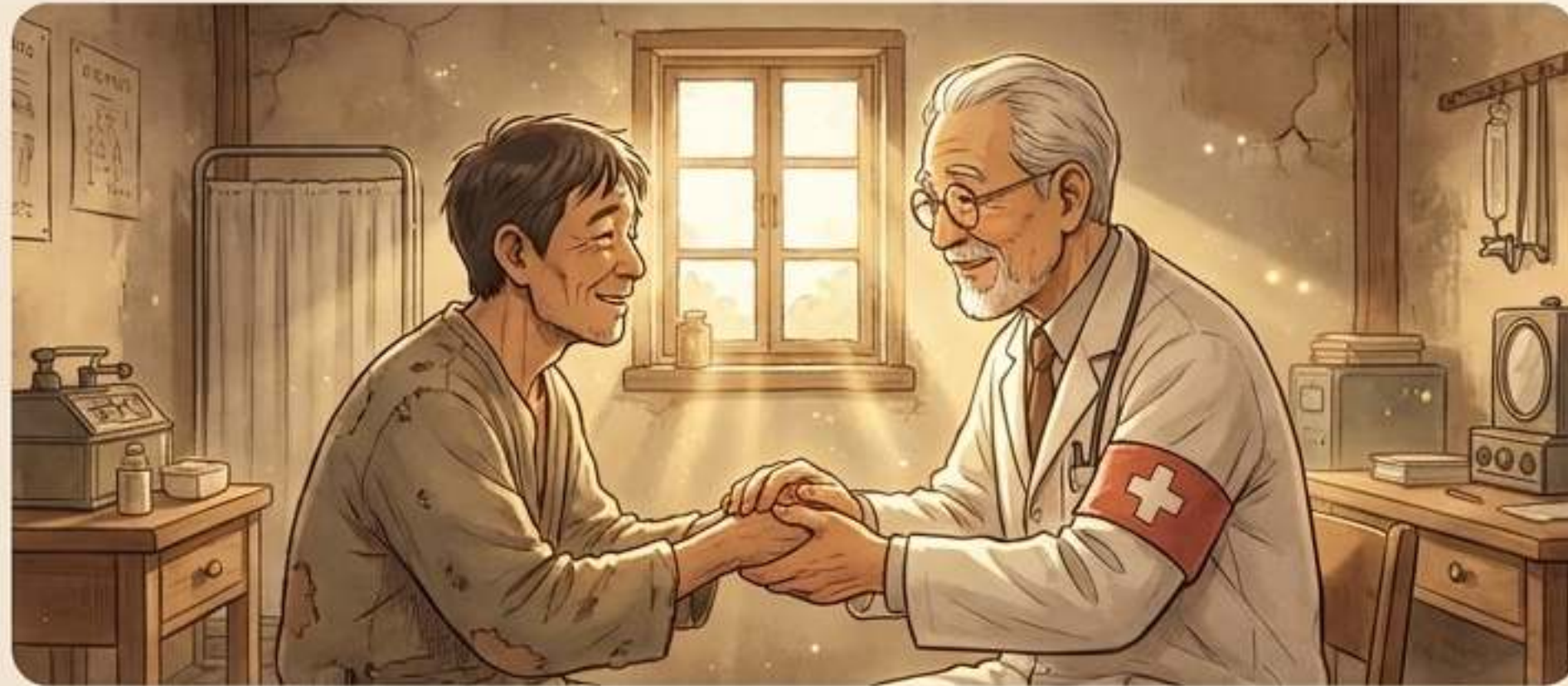
북소리
(The Drumbeat)
= 예수님의
명령과 소리

노 젓기
(Rowing)
= 나의 삶과
기업 경영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장의 소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장단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질문: 과연 내 생각과 판단 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기업 운영이 가능할까?

장기려 박사 케이스 스터디: 공허의 경영



복음병원의 시작

가난하고 돈 없는
환자들이 몰려오는 상황.

시장의 논리

돈이 없으면 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은
적자로 망한다.

하이레테스의 순종

기도 중 '그냥 치료해 주어라'는
주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
막대한 병원 적자 위기 발생.



뒷문을 열어주는 역설적 순종

“

야간 회진의 기적:
오늘 밤에 내가 뒷문 열어놓게 할 테니
슬쩍 가시오. 도망가시오.

”

! 재무상태표의 현실 (Balance Sheet Reality)

돈을 받지 않고 도망가게 둔 환자들이 속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병원 파산이 확정적인 순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실천한
하이레테스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킹덤
ROI

순종이 낳은 거대한 생명력

하나님의 결산 (God's Accounting)

적자로 망해야 할 병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의 복음병원은 엄청난 생명력을 품은
거대한 의료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Business Insight: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
하심을 따를 때, 기업은 세상의 계산을 뛰어
넘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안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 (Diakonos): 자원 흘려보내기와 청지기 정신




어원적 의미

- 철저하게 숨어서 봉사하는 자
- 집사 (Deacon)
- 비밀을 맡은 자



왕국 경영자의 두 번째 정체성

- 창고의 열쇠를 맡았다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뜻에 따라 '열쇠를 열고 닫는' 청지기입니다.

 위험 경고: 직분이나 권한을 얻은 후 어느 날부터 자기를 주장하고 앞장서려 할 때 기업과 교회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마르다의 변화: 일 중심에서 기쁨의 수종으로



과거의 마르다 (Working with Ego)

- 현상: 열심히 봉사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가득함.
- 동기: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자기 중심적 헌신.

변화된 마르다 (Working in Joy)

- 현상: 요한복음 12장, 말없이 불평 없이 기쁨으로 섬김.
- 동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재능으로 조건 없이 수종 들.

결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섬기는 자, 그것이 참된 디아코노스입니다.

피스토스 (Pistos): 관계 자본의 축적

어원적 의미: 충성.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흔한 오해: 충성을 그저
'땀 흘려 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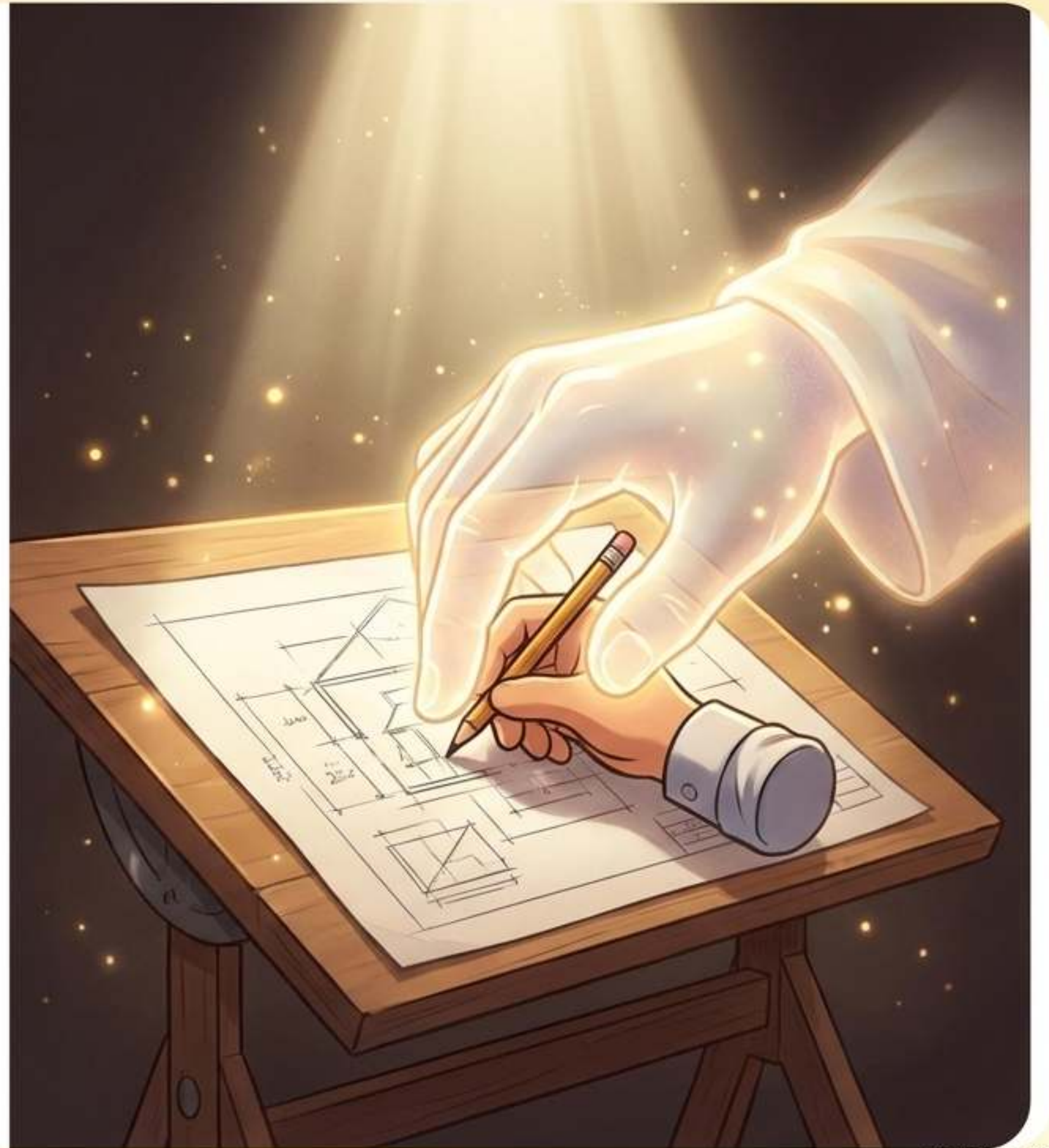
왕국 경영자의 세 번째 정체성:
충성은 '일'이 아니라
'관계(Relationship)'입니다.

새가족을 데려오는 자는
많으나, 끝까지 제자로 세우는
자가 적은 이유는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갈망

“
주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 부족하지만 우리와 손잡고 동행하며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 비즈니스의 성과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캔버스일 뿐입니다.



왕국 경영자 OS 작동 원리

Phase 1. 의지의 내어드림 (Hyperetes)

- 내려놓음: 주님의
복소리에 완벽히 동기화.
내 통제권을 포기.

Phase 2. 자원의 흘러보냄 (Diakonos)

- 섬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자원을 관리.

Phase 3. 관계 자본의 완성 (Pistos)

- 신뢰: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을 증명.

Synthesis Insight: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과제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으면(Hyperetes), 자연스럽게 불평 없이 섬기게 되고(Diakonos), 이는 필연적으로 깨지지 않는 신뢰와 관계 자본(Pistos)을 구축합니다.

누룩 진단 매트릭스: 세상의 논리 경계하기



누룩 진단 매트릭스: 세상의 논리 경계하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왕국의 방패
현상: 형식적 신앙.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시장에서는 철저히 시장 논리로 살아감 (주일과 평일의 분리).	현상: 타협 신앙. 기업 이윤과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함.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리가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왕국 경영자 OS는 멈춥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터

내가 복음이 되면,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신실한 대인 관계와 일터에서의 태도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최종 비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 여러분.
철저한 하이레테스, 디아코노스, 피스토스의 삶으로 거룩한 충격을 만들어 가십시오.**